전남광주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 절반도 못 채워

지난해 7709.2ha 이행…신청 면적도 21.7% 미달
전국 자율감축 달성률 7.2%…농가 참여 유인 부족

쌀값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해 추진한 벼 재배면적 감축사업과 관련해 전남광주지역이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지역별·사업유형별 벼 재배면적 조정계획 및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광주지역의 실제 감축 면적은 7709.2ha로 집계됐다.

당초 감축 목표인 1만6345.4ha의 47.2%에 그친 규모다. 목표를 채우지 못한 면적은 8636.2ha에 달했다.

감축 신청 면적과 실제 이행 면적 사이에도 차이가 있었다.

전남광주지역에서 감축을 신청한 면적은 9849.5ha였지만, 이 가운데 2140.3ha는 실제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신청 면적 대비 이행률은 78.3%로, 신청 물량의 21.7%가 미이행된 셈이다.

전국적으로도 실적은 저조했다.

지난해 정부가 설정한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는 8만ha였으나 실제 감축 면적은 3만4035.3ha로 목표 대비 이행률이 42.5%에 머물렀다.

신청 면적 4만8710.3ha와 비교한 이행률도 69.9%에 그쳤다.

전남광주의 목표 대비 이행률은 전국 평균보다 4.7%p 높았지만, 당초 계획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농가 참여를 뒷받침할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업유형별로는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한 '자율감축'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전국 자율감축 목표는 3만4571ha로 전체 목표의 43.2%를 차지했지만 실제 감축은 2487ha에 불과했다. 목표 대비 이행률은 7.2%였다.

농지이용 전환도 목표 4017ha 가운데 1816ha만 이행돼 달성률이 45.2%에 그쳤다. 친환경인증은 목표 1274ha 중 740ha를 이행해 58.1%를 기록했다.

윤 의원은 충분한 예산과 농가 유인책 없이 감축 목표를 크게 늘린 점을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농식품부는 2024년 목표 2만6000ha를 웃도는 2만9412ha를 감축하자 지난해 목표를 8만ha로 3배 이상 확대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도 미이행 사유에 대해 "선제적 수급조절 관련 예산 및 농가 인센티브가 충분치 않아 감축이 목표에 비해 미흡했다"고 밝혔다.

벼 재배면적 감축은 수확기 공급 과잉과 쌀값 하락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생산조절 수단이다. 그러나 목표와 현장 이행 사이의 격차가 큰 만큼 농가 소득을 고려한 지원과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사전적 생산조절은 수확기 쌀값 붕괴와 수천억원에 달하는 사후 시장 격리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안전장치"라며 "전략작물직불금 단가의 과감한 인상, 대상 품목 확대, 참여 지자체 및 농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담아 정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선선한 가을바람에 러닝족 '기지개'

광주신세계, 관련용품 선봬…살로몬 등 문의 이어져

㈜광주신세계는 본격적인 가을 러닝 시즌을 맞아 러닝 베스트와 힙색 등 러닝용품을 선보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트렌드 분석업체 컨슈머인서치에 따르면 러닝 관련 검색량은 여름철 감소했다가 날씨가 선선해지는 9월 들어 최고점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야외활동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자 러닝에 다시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러닝을 하면서 스마트폰과 카드, 물 등을 휴대해야 하는 만큼 소지품 보관과 수분 섭취를 돕는 러닝 베스트와 힙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러닝 거리와 목적에 따라 선호하는 제품도 달라진다.

10㎞ 이상 장거리를 달리는 러너들에게는 수분을 충분히 휴대하면서 소지품까지 보관할 수 있는 러닝 베스트가 주로 선택된다.

광주신세계 플레이스팟 살로몬 매장에서 판매하는 '어드밴스드 스킨 5 러닝 베스트'는 초경량 메쉬 소재를 적용해 가볍게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전면 포켓에 물병을 넣을 수 있고 몸에 밀착되는 형태로 설계돼 달릴 때 흔들림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같은 층 뉴발란스에서는 장거리 러닝에 적합한 '러닝 베스트'를 선보이고 있다. 넉넉한 수납공간과 함께 땀과 열기를 배출하는 소재를 적용해 장시간 달릴 때 쾌적한 착용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푸마의 러닝 베스트도 실용성을 앞세웠다. 소지품을 수납할 수 있으며 물통이 함께 구성돼 별도의 용품을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줄였다.

반면 러닝을 처음 시작하거나 비교적 짧은 거리를 달리는 입문자들에게는 러닝 힙색이나 러닝 벨트가 선택지로 꼽힌다.

장거리 러닝과 달리 단거리에서는 많은 양의 물을 휴대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스마트폰과 카드 등 최소한의 소지품만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제품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광주신세계 플레이스팟 데상트에서는 러닝 힙색과 러닝 벨트를 판매하고 있다. 허리에 밀착되는 신축성 있는 소재를 활용해 달리는 과정에서 소지품이 흔들리는 것을 줄이고 스마트폰과 카드 등을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러닝하기 좋은 날씨가 찾아오면서 러닝 베스트와 힙색 등 관련 용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자신의 러닝 거리와 운동 방식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 안전하게 가을 러닝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



롯데백화점 광주점, 커스터마이징 캐시미어 코트 선봬 롯데백화점 광주점 에트로 매장은 오는 2일부터 6일까지 '나 만을 위한, 단 하나의 캐시미어 코트'를 제안하는 MTO(Made-To-Order)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에트로만의 아이코닉한 코트를 고객 개인 취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여 단 하나뿐인 코트를 오랜 시간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볼 수 있다. 상품은 주문 후 약 8주간의 제작 기간을 걸쳐 받아 볼 수 있다.

'5일 황금연휴'…홈플러스, 4000종 특가전

한돈·과일부터 간편식 등

황금연휴를 앞두고 홈플러스가 가족 단위 소비자를 겨냥한 대규모 먹거리 할인 행사에 나선다.

홈플러스는 오는 5일까지 '맛있는 황금연휴 5일 특가전'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개천절을 포함한 5일간의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먹거리부터 나들이에 필요한 간편식과 간식, 생필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한자리에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홈플러스는 행사 기간 먹거리와 생필품 등 4000여종의 상품을 준비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

먼저 1일에는 한돈데이를 맞아 한돈 돼지고기를 중심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삼겹살과 목심을 비롯해 돼지갈비 등 다양한 한돈 상품을 마련하고, 연휴 기간 한돈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과일과 채소 등 신선식품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제주 하우스밀감과 호주산 오렌지를 비롯해 버섯, 양상추, 청경채, 양파, 알배기, 고구마 등 주요 채소를 대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계란도 행사 상품으로 마련했다.

연휴 나들이 수요를 겨냥한 간식과 간편식 행사도 강화했다. 파이와 비스킷, 라면, 스낵 등 인기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묶음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먹거리도 다양하게 선보인다.

일자별 행사도 마련했다. 냉동 블루베리와 올리브유, 음료, 고추장 등 식재료와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할인 및 묶음 행사를 진행한다. 초코파이와 맥주 등 연휴 기간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즐기기 좋은 상품도 행사 품목에 포함했다.

신선식품 분야에서는 사과와 키위 등 과일과 생물고등어, 햅쌀 등 다양한 품목을 준비해 연휴 장보기 수요를 겨냥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제주항공, 고객만족도 조사 1위

예약부터 기내서비스까지 호평

제주항공이 '2026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조사'에서 국내선항공 부문 1위에 선정됐다.

제주항공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한 이번 조사에서 종합점수 84점으로 국내선항공 부문 최고점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평가는 요소만족도와 전반적인 만족도, 재이용 의향 등 3개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제주항공은 13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요소만족도에서 예약·발권 편의성과 탑승수속, 기내서비스, 회원혜택 등 항공여행 전 과정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제주항공은 2024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으로 활동하며 고객 중심의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주최한 '2024 CCM 우수 인증기업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에서는 국내 항공사 최초로 소비자중심경영 부문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올해 6월에는 공항·객실 내 고객 편의 향상 등을 인정받아 '2026 국가서비스대상' 저비용항공사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편 KCSI는 국내 산업별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나타내는 종합지수다. 최근 1년 이내 해당 기업의 상품·서비스를 이용한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항공 부문은 올해부터 기존 저비용항공사·대형항공사 구분에서 국내선·국제선 구분으로 조사체계가 개편됐다.

송대웅 기자

